

## 충남문화의 숨결과 물결

### - 충남의 새로운 미래가 될 문화산업을 주목하자 -

설 기 환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1. 문제에 대한 인식

온 세계가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이변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그 기록을 갱신하며 우리를 위협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주원인이 되어 기온상승으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환경 피해가 위협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산업이 미래산업이며 지구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쁘다는 것이다. 제조공장이 많아서 경제적인 면과 고용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적은 상황이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성을 안고 있음이다.

#### 2. 새로운 대비가 필요한 시점

녹색기술에 의한 녹색산업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녹색기술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산업적인 수준이 녹색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발전면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의 구성비가 조금 높고 원전건설기술을 수출하는 수준에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환경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인 충청남도가 녹색산업

과 녹색환경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기획과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제조업의 공장을 이전할 수도 없고 단번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구조로 탈바꿈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제조공장중심의 산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공장들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가장 수구적으로 준비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우리가 가진 것과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을 찾아서 육성해 가야 한다.

### 3. 내실있는 경쟁력에 대한 점검

초광역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충청권이 선택한 산업영역이 New IT와 첨단 바이오 산업이다. New IT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일구어 질 것이고 첨단 바이오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클러스터로 지정받은 오산이 중심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충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초광역권산업과 환경문제의 당면과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물론 충청남도에도 이런 New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전혀 없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보다 다른 전략적 요소가 없으면 기존의 업적이 많은 지역에 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미래가치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원과 기술력만의 시대가 아니다.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가 인간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가서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한다. 특히 IT와 바이오는 그 요소와 기술만으로 변별력을 차별화하기는 어렵다. 문화적인 감성으로 뒷받침된 마케팅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 4. 충남의 내부역량의 강점인 문화자원

충남은 충청권내에서 가장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아니 국내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적 문화적 감성과 자원이 충분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역사적 문화로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안고 있고 근대사회화의 상징인 보부상의 내포문화 있다. 최근대의 역사로 잊혀질 수 없는 독립의 중심이 있고 분단과 전쟁의 본산인 군문화의 그루터기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충분한 문화유산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산업의 수준은 국내 지역의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는 형편이다. 열악한 제조산업을 유치해서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일구어 낸 노력과 업적은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경쟁력이 충분한 부분을 가치적 인식이 부족하여 방치한 부분은 반성하여 새롭게 전략을 세워야 할 부분이다.

## 5. 무한한 가치를 가진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단순히 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는 산업이다. 문화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지역과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다른 상품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광과 교육의 영역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한다.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그 좋은 예가 되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아바타”,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가 가진 힘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것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더할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은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나라의 유물을 가져다 전시하면서도 “문화는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선진국의 주장에 우리의 문화적 뿌리까지 내 줄 준비를 하는 것이 된다.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숨결을 느끼고 그 숨결을 물결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문화란 그저 삶의 주변에 두는 것만으로는 유실되기 쉬운 것이다. 조상과 선배들의 문화적인 손길과 감흥을 세밀히 느끼고 새로운 창의를 더하여 무한한 가치를 가진 문화산업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 5. 융합산업으로서 문화의 응용

기술만으로 세계 최고를 주창하다가 어려움을 겪던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문화와 문화적 디자인을 내세워 세계를 놀라게 하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면 문화를 응용한 응용산업의 위력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이며 지역대표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도 단순히 기술만으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충남이 가진 전통적인 우수성과 창의성을 우리만이 가진 토양적 감성으로 읽어내어야 한다. 또한 압제의 민족적 아픔을 곁길로 승화한 정기를 새롭게 하며 이 땅을 피비린내에서 성공의 세계적 표본으로 만든 동인을 찾아내어 문화의 우수성도 산업화하고 나아가서 이런

문화를 우리의 대표산업에 문혀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 6. 자연자원에 문화 입히기

포도주는 프랑스의 자원과 문화를 전세계에 뿌리내리게 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세계에서 프랑스 포도주의 출시를 기다리고 그 문화를 배우면서 품격이 높아지는 느낌을 나눈다. 다른 음식과의 조화, 잔을 받는 매너, 맛을 느끼는 방법 등 문화로 포장된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소주에 해당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가 소비하며 즐기고 있다.

충남은 산과 바다, 강과 들을 모두 품고 특유한 토양의 자연물들이 많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자원들을 문화적 감성과 연결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문화적인 내용과 지역적 특성을 응용하여 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과 궁합제품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포도주, 월남쌀국수, 피자과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 7. 세계를 놀라게 할 출발선

동계올림픽의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의 장거리는 우리나라로서는 넘보기 힘든 영역이자 기반이 없던 분야인데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도전을 준 사례이다. 기본적인 자질과 끈질긴 노력은 많은 어려움과 불비한 여건에서도 불가능을 가능과 환희로 바꾸어 그 기쁨을 더 크게 해 주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 충남이 문화산업 그 자체와 문화를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문화적인 유산과 다른 산업을 일구어 낸 저력으로 더 큰 과실을 딸 수 있음을 느낀다. 이제 우리의 문화적 숨결을 세미한 부분까지 느끼며 전세계를 향해 문화적이고 새로운 산업적 물결을 일으킬 출발점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시상대를 기대해 보자.

다른 사람들이 창작하고 기획한 것에 제초나 제작의 기술을 더하는 암전은 무의미하다. 첨단산업이라 하는 IT와 Bio에 문화적인 경쟁력을 담지 못하면 더욱 심심해 진다. 우리의 이야기로 만든 우리의 콘텐츠를 세계를 향해 출시하고 자원과 기술에 문화를 담아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날을 향해 출발선과 바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